

연구 논문

1920년대 초반 김경천의 항일무장투쟁

윤 선 자*

- | | |
|---------------------|--------------------|
| 1. 머리말 | 4. 연해주에서의 마적 토벌 |
| 2. 일본 유학 | 5. 통합부대 '수청의병대' 지휘 |
| 3. 만주 망명과 서간도에서의 활동 | 6. 맺음말 |

1. 머리말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중국의 만주 지역과 러시아 지역으로 망명하였다. 그러한 발길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강제되었던 동안 계속되었다.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에는 한인촌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이주로 1920년대 초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 전남대학교 교수

조사·연구하였다. 그런데 중국 지역과 비교할 때 러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그것은 러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金擎天은 1920년대 전반기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다. 이영명이 김경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였는데, 김경천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신문자료들을 조사하여 김경천이 흰 말을 타고 만주, 시베리아를 누빈 항일영웅 金日成이라고 하였다.¹⁾ 이어 일본육사 출신들을 정리한 이기동의 책에 김경천이 언급되었고,²⁾ 『북조선왕조성립비사:김일성전』에도 김경천의 말년이 일부 소개되었다.³⁾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연해주에서 활동한 한국인들을 정리한 마뜨베이 김의 글에도 김경천이 포함되었으며,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金光瑞’라는 이름으로 김경천의 이력이 수록되었다.⁵⁾

김경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환에 의해 추진되었다. 박환은 김경천의 장녀 金智理의 장남 김이브게니가 작성한 「김경천에 대한 회고」(1995년)를 활용하여 김경천의 집안, 일본 유학, 만주 망명,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항일운동, 러시아 내전 이후의 행로 등 김경천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⁶⁾ 그리고 『擎天兒日錄』 공간 이후 새로운 내용이라며 新興武官學校와 김경천의 관계를 언급하였다.⁷⁾ 한편 반병률은 1920년대 전반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무장투쟁을 정리하면서 김경천을 거론

1) 이영명, 『김일성 열전』, 신문화사, 1974, 55~56쪽.

2)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 일본육사 출신의 역사』, 일조각, 1982.

3) 박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341쪽.

4) 마뜨베이 김, 『극동의 소비에트권력을 위한 투쟁에서 한민국제주의자들(1918-1922)』, 1979;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이준형 옮김, 역사비평사, 1990.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

6)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이 논문은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저자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에 수록되었다.

7) 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149~150쪽.

하였다.⁸⁾ 윤상원은 러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독립운동을 분석하면서 김경천을 언급하였다.⁹⁾ 그리고 『경천아일록』이라는 김경천의 일기가 김병학에 의해 정리, 간행되었다.¹⁰⁾ 김병학은 이 일기를 토대로 김경천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정리하였다.¹¹⁾

이처럼 김경천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추적한 글들에서 거론되었다. 그런데 김경천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전체적으로 추적·정리한 박환의 논문은 김경천의 손자가 작성한 회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아쉬움이 있고, 김병학의 글은 『경천아일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한계가 있다. 손자라고는 하지만 제3자의 회고자료, 일기라고는 하지만 그날그날 기록하지 않은 일기자료가 갖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일제의 첩보자료와 당시의 신문기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천아일록』의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김경천이 전개한 독립운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며칠씩 모아서 기록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날그날 작성하여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자신의 삶을 기록한, 그리고 직접 자신의 집안을 회고하여 정리한 『경천아일록』과 「오가세기 김해김씨」는 김경천의 독립운동, 1920년대 러시아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8)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9)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 김경천 지음, 김병학 정리 및 현대어역, 『경천아일록』, 학교방, 2012.

11) 김병학, 「擎天兒日錄과 연해주 항일독립운동가 김경천의 생애」, 『인문사회과학연구』 1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2. 일본 유학

김경천은 1888년 6월 5일 함경도 北靑郡 西門外에서 金鼎禹(1857-1908)와 파평윤씨 玉聯¹²⁾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5년 경기도 廣州郡 草月面 鶴峴里로 이사하였는데¹³⁾ 그해 아버지 김정우와 형 成殷(1879-1906)이 일본유학을 떠났다. 김정우와 김성은의 일본 유학은 김정우의 유배와 일정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김정우는 1886년 尹雄烈과 함께 전라도 綾州에 유배되었다가 1894년 6월 풀려났다.¹⁴⁾ 당시 윤웅렬은 南兵使 직책에 있었는데 군사 부문에 잘못이 크다는 1884년 함경감사 林翰洙의 狀啓를 시작으로 공론이 일어 유배가 결정되었다.¹⁵⁾ 『경천아일록』에 의하면, 김정우는 윤웅렬과 함께 서울에 들어왔다가 국사범과 사통하였다는 죄목으로 윤웅렬과 똑같이 능주로 귀양을 갔다. 즉 김정우는 윤웅렬과 상당히 깊은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윤웅렬은 1880년 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었고 일본의 여러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김정우는 윤웅렬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본 세력이 확장되어가던 현실에서 일본유학을 결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8년의 유배에서 풀려난 김정우는 1894년 11월 警務廳 總巡敍 判任官 6등에 임명되었다.¹⁶⁾ 이듬해인 1895년 5월 일본에 유학하여 慶應義塾¹⁷⁾에

12) 『경천아일록』, '2. 출생지'; 김경천 記述, 「吾家世紀 金海金氏」. 「吾家世紀 金海金氏」이 자료는 김병학이 정리 간행한 『경천아일록』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13) 『경천아일록』, '3. 광주 이거'.

14) 『고종실록』 고종 31년(1894년) 6월 22일자. 『경천아일록』에는 김정우가 나이 20살(즉 1877년)에 北靑南兵使 윤웅렬과 같이 능주로 귀양가 10년간 유배를 살았다(즉 1887년)고 하였는데 관찰자료와 비교하면 김경천의 정리에 연대 착오가 있다.

15)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5월 14일, 고종 23년(1886년) 4월 21일.

16)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344쪽.

17) 1881년 윤치호·유길준 등이 조사시찰단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후 처음으로 입학하였다.(한시준, 「한말 일본유학생에 관한 일고찰」,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서 수학하고¹⁸⁾ 도쿄(東京) 神田區 順天九合社 공업 예비과를 거쳐 도쿄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1899년에 졸업하였다. 그리고 도쿄 포병공창 총탄제조소에서 총탄제조법을 공부한 후 1900년 10월 귀국하여 軍部の 技師, 軍器廠 기사¹⁹⁾, 軍器廠長²⁰⁾ 등으로 일하였다.²¹⁾ 김성은은 도쿄 成城학교와 육군사관학교 공병과를 졸업하고 돌아와 무관학교 교관(육군공병참위)으로 근무하였고,²²⁾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²³⁾

아버지와 형이 일본유학 중이던 기간에 김경천은 어머니를 잃었다.²⁴⁾ 한동안은 아버지가, 곧이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不在한 상황에서 생활하였던 김경천의 삶은 아버지와 형이 일본유학에서 5년만에 돌아오자 변화하였다. 1900년 10월 아버지는 귀국하였고²⁵⁾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하였다. 김경천은 京城學堂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그가 일본 민간단체 설립의 경성학당에 입학한 것은 일본유학을 한 아버지와 형의 긍정적인 일본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1896년 개교한 경성학당은 수업료가 없었고 紙墨 등의 비용도 학당에서 제공하였는데²⁶⁾ 김경천의 집은 넉넉한 편이었다.²⁷⁾

18)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우」, 『대한제국관원 이력서』, 1972, 504쪽.

19) 군기창 기사는 1904년 7월 6일 공포된 칙령 제18호 〈軍器廠官制〉에서 발견된다. “군기창은 提理 1인, 副官 1인, 主計 1인, 主事 2인, 技師 5인, 技手 7인이다.”(『고종실록』 고종 41년[1904] 7월 6일)

20) 군기창장은 1905년 3월 1일 공포된 칙령 제26호 〈軍器倉官制〉에서 찾을 수 있다. “군기창 직원은 廠長이 1인인데 砲兵副領이나 參領이고, 副官이 1인인데 砲兵正尉나 副尉이며.”(『고종실록』 고종 42년[1905] 3월 1일)

21)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우」, 『대한제국관원 이력서』, 504~505쪽; 박환, 「재려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31~232쪽.

22) 『고종실록』 고종 39년(1902) 1월 10일.

23) 『고종실록』 고종 42년(1905) 7월 13일.

24) 『경천아일록』(3. 광주 이거)에는 1897년, 「오가세기」(「김해김씨」)에는 1899년 사망하였다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25) 『경천아일록』, 4. 경성 주거.

26) 한용진, 「개화기 일본 민간단체 설립 학교 고찰 - 경성학당을 중심으로 -」, 『동양학』 3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201~203쪽.

27)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343쪽. 혈성단원이었던 박청림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빈천하게 된 양반가문 출신이라고 하였는데(박청림, 「혈성단부대의 전투

1903년 3월 경성학당을 졸업한 김경천은 1904년 16세의 나이로 일본유학 길에 올랐다. 갑오개혁정부가 붕괴되고 친러정권이 수립되면서, 중단되었던 일본유학생 파견이 1904년 주일전권공사로 일본에 다녀온 李址鎔의 건의로 재개되었다.²⁸⁾ 러일전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대한제국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였다.²⁹⁾ 김경천은 자신이 일본유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아버지와 형이 관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데³⁰⁾ 당시 유학시험이 ‘留學必以忠孝之本’이란 논제로 실시된 때문이었다.³¹⁾ 즉 김경천의 일본유학은 대한제국정부의 인재양성 필요, 일본유학을 한 아버지와 형의 경험 및 官人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졌다.

1904년 10월 9일³²⁾ 김경천은 49명의 유학생들과 함께 인천항을 출항하였다. 일본말을 할 줄 알았기에 유학생들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³³⁾ 유학생 대부분이 기초적인 일본어는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경성학당을 졸업한 김경천의 일본어 실력이 월등하였을 것이다. 군산, 목포, 부산항을 거쳐 12일에 일본 馬關에 도착하였고, 15일 도쿄로 가서 東明館에 머물렀다.³⁴⁾ 49명의 유학생 중 44명은 도쿄부립 제일중학교에 입학하였다.³⁵⁾

행로;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362쪽) 오인이다.

28) 박찬승, 「104년 황실 파견 도일유학생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29)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사학지』 50, 단국사학회, 2015, 91쪽.

30) 당시 김경천의 아버지는 軍器廠長, 육군포병부령이요, 형은 공병대장, 육군공병부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한다.(『경천아일록』, '4. 경성 주거')

31) “생도 50명을 일본에 유학보내다.”(『고종실록』, 고종 41년[1904] 10월 6일)

32) 公民, 「노령견문기(5). 8. 경천 김장군」,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자에는 1904년 8월이라 하였는데 『고종실록』에 의하면 1904년 10월이었다.(『고종실록』 고종 41년 [1904] 10월 8일) 공민은 羅景錫이다.

33)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34) 『경천아일록』(5. 일본 유학)에는 “히비여日比谷 공원 서편 동경여관에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5) 한철호, 「대한제국기 주일 한국공사의 임면 배경과 경위(1900~1905)」, 『한국근현대사연구』 44, 2008, 103쪽.

아버지와 형은 공업을 배우라고 했지만, 김경천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05년(17살) 봄 도쿄 간대(神田) 거리의 한 작은 서점에서 한 권의 책과 마주하였다. 동서고금의 제일가는 영웅의 전기를 찾는 그에게 서점주인은 한 책 한 권을 주었다. 『ボナパルト ナポレオン』이었다. 연일 그 책을 읽고 또 읽은 김경천은 군인이 되겠다고 결하였다. 나폴레옹에 매료된 그는 나폴레옹과 같이 幼年學校에 입학하기로 결심하고³⁶⁾ 주일한국공사를 찾아가 육군유년학교 입학 청하였다. 김경천의 결정에 아버지와 형은 찬성하지 않은 것 같다. 그해 여름 대한제국의 陸軍 副領으로서 도쿄를 방문한 김성은은³⁷⁾ 동생 김경천의 육군유년학교 입학에 반대하였다.³⁸⁾ 일본육군사관학교 공병과를 졸업하고 대한제국의 교관으로 근무하였지만, 김성은은 동생의 육군유년학교 입학에 반대하였다. 대한제국의 당시 정세를 보건데 군인은 그다지 희망적인 진로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경천은 1905년 9월 1일 도쿄의 육군유년학교 예과 제2학년에 입학하였다. 650명의 입학생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졸업할 때까지 아베(阿部) 외에는 친구가 없었다.³⁹⁾ 육군유년학교는 예과와 본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과의 교육기간은 3년이었다. 매일 한 시간의 術科에서 교련·체조·유도·검술 등을 배웠고, 토요일 오후에는 야외행군 연습을 했다.⁴⁰⁾ 1907년 9월 1일 김경천은 육군유년학교 본과에 입학하였다.⁴¹⁾ 본과는 교육기간 2년으로 당시 일본 학제의 중학교 45학년 수준이었다. 러시아어·독일어·불어·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었고, 술과에서는 馬

36) 김경천은 이미 육군유년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유학을 준비 중이던 1904년 육군유년학교관계가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 고종 41년 9월 24일)

37) 『고종실록』 고종 42년(1905) 7월 14일.

38)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39)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40) 이웅준, 『회고 90년 : 1890-1981』, 서울:산운기념사업회, 1982, 71쪽;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유학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100쪽.

41)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術이 더해졌으며, 매주 오후 야외연습을 했다.⁴²⁾ 1908년 7월 육군유년학교 본과를 졸업한 김경천은 도쿄 기병 제1연대 제1중대에 입대하였다. 육군유년학교 졸업생들은 사관후보생이란 이름으로 일본군 각 연대에 배속되어 견습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⁴³⁾

1908년 12월 1일 김경천은 일본육군사관학교(이하 ‘일본육사’로 약칭)에 제23기생으로 입학하였다.⁴⁴⁾ 그는 일본육사를 장교가 될 마지막 학교라고 하였다.⁴⁵⁾ 나폴레옹처럼 장교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한인청년들의 일본육사 입학은 1896년(졸업 1897년) 제8기생(8명)부터였다. 이어 1898년(졸업 1899) 11기생 21명, 1902년 15기생 8명, 1908년 23기 1인(총 754명), 1912년(졸업 1914) 12월 26기 14명(총 766명) 등 4기에 걸쳐 총 52명이 일본육사에 입학하였다.⁴⁶⁾

일본육사는 예과와 본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육군유년학교를 졸업한 한인청년들은 본과로 들어갔다. 본과에서는 군사학을 비롯하여 영어·불어·독일어·러시아어·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워야 했다. 군사학은 전술학·전사·군제학·병기학·사격학·항공학·築城學·교통학·測圖學·마학·위생학 등, 술과는 교련·陣中근무·검술·사격·체조·마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각 병과의 操典, 教範, 野外要務令, 내무, 체식에 필요한 內務書, 육군체식 등도 교육하였다. 아울러 천황에 대한 충성심, 공격정신, 책임관념, 무사도 정신 등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⁴⁷⁾ 즉 일본육사의 교육 이념과 목표는 일본제국의 육군장교 양성이었다.⁴⁸⁾

42) 이응준, 『회고 90년 : 1890-1981』, 71쪽;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100쪽.

43)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102쪽.

44) 일본육사 11기생으로 구한국정부의 참령이었던 김성은이 김경천의 아저씨로 김경천의 일본육사 입학을 주선하였다는 이영명의 추정(이영명, 『김일성 열전』, 59쪽)은 오류이다. 김성은은 김경천의 형이다. 그리고 그는 동생의 일본육사 진학을 반대하였다.

45)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46)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95-98쪽.

47) 이영명, 『김일성열전』, 75-77쪽.

일본육사 입교 후 김경천은 이름을 바꾸었다. 일본육사 3년 후배 李應俊(1890-1985)에 의하면, 김경천의 처음 이름은 金顯忠이었는데 일본육사 재학 중 光瑞로 개명했다고 한다.⁴⁹⁾ 1908년 8월 6일자 『황성신문』의 ‘관비유학생 명단’에서 “육군중앙유년학교에 金顯忠”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다.⁵⁰⁾ 그가 왜 이름을 바꾸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2월 6일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⁵¹⁾ 개명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부담은 없었을 것이다.

입학한 지 1년 반 만인 1910년 6월 일본육사를 졸업하였고, 일본육군의 기병에 입대한지 2년 반 만인 1911년 2월 말 기병소위로 임관하였다.⁵²⁾ 조국이 국망하였으니 장래를 위해서는 실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에 일본육군의 기병소위로 임관하였다고 김경천은 『경천아일록』에 기록하였다.⁵³⁾ 한인청년들은 일본육사를 졸업하면 대개는 귀국하여 무관학교 교관으로 임용되었는데 1907년 군대해산 이후에는 일본군으로 근무하거나, 독립운동의 길로 나아갔다.⁵⁴⁾ 1911년 8월 서울 사직동 166번지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조부 金奎濬, 아내 尹貞和(1892-1971),⁵⁵⁾ 여동생 玉振(1908-?)⁵⁶⁾을 남겨두고 도쿄로 돌아가 기병연대에서 재직하였다. 그리고 1913년 1월 가족을 도쿄로 이주시켰다.⁵⁷⁾

48)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103쪽.

49) 이영명, 『김일성열전』, 59쪽.

50) 『황성신문』 1908년 8월 6일 「관비유학생」.

51) 「오가세기 김해김씨」.

52) 일본육사 졸업 후 6개월간 연대근무를 해야 했다.(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102쪽)

53)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54)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112쪽.

55) 박환은 김경천의 아내 이름이 유평화라고 하였는데,(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32쪽) 『경천아일록』에 의하면 유평화이다.(『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56) 김정우의 아내이자 김경천의 어머니인 윤옥련은 1899년 가을에 사망하였다.(「오가세기 김해김씨」) 그러므로 1908년생인 김옥진의 어머니는 김경천의 어머니와 다르다.

57)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오가세기 김해김씨」.

1914년 봄 김경천은 육군戶山학교⁵⁸⁾에 입학하여 검술·체조를 6개월간 수료하였다.⁵⁹⁾ 1915년 9월 일본육군 기병소위에서 기병중위로 승진하였고, 그해에 육군호산학교를 졸업하였다.⁶⁰⁾ 1916년 기병학교에 입학하여 馬術科를 수료하고 1917년에 졸업하였다.⁶¹⁾

한편 1916년 12월 일본육사 제26기와 제27기생 중 尹相彌·이응준·洪思翊 등 도쿄 제1사단에 근무하던 한국인 장교들이 발기인이 되어 만든 全誼會⁶²⁾의 회장이 되었다. 일본육사 제23기의 유일한 한국인 선배였기 때문일 것이다. 친목단체를 표방하였지만 이 단체는 일본육사 출신의 한국인 청년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 조국의 현실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퇴학하고 돌아가자고 하였고, 二重橋 앞에 가서 모두 자결하여 억울한 마음을 풀자고도 하였다.⁶³⁾ 육군유년학교 입학 후 일본인들 사이에서 거의 언제나 혼자 지냈던 김경천은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렸다.⁶⁴⁾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러한 상황은 다른 한국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모임은 한국어를 잊지 않게 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망국된 조국도 인식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고민하게 했을 것이다.

58) 서양식 사관교육을 실시하던 곳으로 하사관 양성기관으로 1883년 서재필 등 14명이 호산학교에 들어가 7개월 혹은 1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았다.(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3쪽)

59)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60)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 「오가세기 김해김씨」.

61)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 「오가세기 김해김씨」.

62) 회지의 일부를 洪思翊의 아들(일본육사 45기)이 소장하고 있다는데(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 일본육사 출신의 역사』, 32쪽) 회지를 검토하면 전의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63) 이형석, 「지청천」, 『한국근대인물백인선』, 신동아, 1970년 1월호 부록, 243쪽.

64)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3. 만주 망명과 서간도에서의 활동

가족들도 모두 일본으로 이사한지 5년 반인 1918년 6월 9일,⁶⁵⁾ 김경천은 “상당한 결심으로 가족, 가구까지 일일이 휴대하여 도일 15년, 임관 9년만에 사직동 본가로 왔다.” 당시 그의 가족은 아내 윤정화, 여동생 옥진, 장녀 智理(1915년생), 차녀 智慧(1917년생)였다.⁶⁶⁾ 1918년 12월 일본육군에 복귀하였던 그는 다시 휴가를 얻어 1919년 2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였다.⁶⁷⁾ 몸이 약해져 휴가를 얻었다지만, 반 년 전에 그가 가족들을 서울로 옮긴 이유가 ‘상당한 결심’이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일본에서 일본군인으로 생활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족들을 서울로 옮기고 반 년 후 자신도 건강을 이유로 휴가를 얻어 서울에 온 것이라 판단된다. 즉 일본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망국된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정한 행보였던 것이다. 그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그의 진로를 결심한 것은 1916년 12월 후배들이 조직한 전의회에 참여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그 자신 오랜 시간을 거쳐 일본육군의 기병사관이 되었기에 기뻐지만 그런 중에도 마음에 이는 불길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⁶⁸⁾ 그때 일본육사 후배인 李應俊과 池大亨(지청천)도 귀국하였다.⁶⁹⁾

김경천이 서울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3·1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3월 1일 오전 10시경 그는 집을 나와 종로의 YMCA⁷⁰⁾로 가서 총무 尹致昊

65)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 「오가세기 김해김씨」.

66) 『경천아일록』, '5. 일본 유학'.

67) 아령조선군인 김경천, 「氷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경험담」, 『동아일보』 1923.7.29. 그런데 『경천아일록』(6. 경성 본저(本邸) 및 독립운동)과 「오가세기 김해김씨」에는 1919년 1월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기록하였다.

68) 김경천, 「氷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경험담」,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69)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 일본육사 출신의 역사』, 31쪽.

70) 1908년 준공된 종로의 '황성기독교청년회관'이다.(『황성신문』 1908년 9월 16일 「청년

(1865-1945)와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 2시경 YMCA를 포위한 일본군사들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풀려난 후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만세현장을 지켜보았다.

김정천은 친구들로부터 이제는 칼을 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칼을 빼려면 국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매일 그의 집 정원에서 회의가 열렸다.⁷¹⁾ 김정천은, 나라 팔아먹은 원수를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제2의 매국자라 하였다.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였고 민족관념도 강한 자신이 목숨과 몸을 아낀다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더하리라 하였다. 군사 부분을 제외하면 일본은 빈껍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접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가능하기에 자신의 망명은 조금 이르지만 젊고 기개와 용기가 있으니 국외에서 여러 해 표류하며 공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와 일본육사 후배 이응준과 지대형은 기차로 신의주를 거쳐 西間道로 가고 하였다. 이응준은 일이 있다 하여 평양으로 갔고, 그와 지대형은 날마다 비밀회의를 하였는데 警務總監部의 警視가 격일로 찾아왔다.⁷²⁾ 일제는 김정천과 지대형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감시하였다.⁷³⁾

셋째 딸 智蘭이 태어난 지⁷⁴⁾ 두 달도 되지 않은 1919년 6월 6일 김정천은 지대형과 함께 夜珠岬⁷⁵⁾ 兵門 너머 쪽에서 자동차를 탔다. 수원에 도착하여 서로 모르는 체하고 기차역으로 가서 일등실 칸에 올랐다.⁷⁶⁾ 이튿날인 6월 7일 신의주 역에 내렸고, 安東縣에서 보낸 여행권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안동현 上 역에 내렸다. 그리고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매일 5-6리씩 걸어 약 보름만에 奉天省 柳河縣 孤山子 大肚子에 있는 서간도

회관 준공기)

71) 『경천아일록』, 6. 경성 本邸 및 독립운동; 이응준, 『회고 90년 : 1890-1981』, 115쪽.

72) 『경천아일록』, 6. 경성 本邸 및 독립운동.

73)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문학과 지성사, 1995, 37쪽.

74) 1919년 4월 17일에 태어났다.(「오가세기 김해김씨」)

75) 서울 종로구 당주동과 신문로 1가에 걸쳐 있던 낮은 고개.

76) 『경천아일록』, 7. 남만주에 出奔 : 4252년(1919년) 6월 6일.

무관학교, 즉 신흥무관학교⁷⁷⁾에 도착하였다. 김경천과 지대형이 망명하자 일본군은 현상금 5만엔을 내걸었다고 한다.⁷⁸⁾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봄 봉천성 유하현 三源堡 鄒家街에서 설립되었다. 1912년 7월 通化縣 哈泥河에 교사를 신축하였는데,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유하현 고산자 대두자로 학교를 옮겨 넓은 병영사와 수만 평의 연병장을 부설하였다.⁷⁹⁾ 김경천이 도착하였을 때 신흥무관학교에는 한반도와 서간도 각지에서 온 약 200명의 학생이 있었다. 김경천과 지대형 그리고 그들보다 며칠 먼저 도착한 경성무관학교·대한제국 군관학교 출신 申英均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기존에 교육을 받고 있던 이들과 세 사람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⁸⁰⁾ 경성무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한 세 사람의 눈에 신흥무관학교의 교육 방법이나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천은 서울 집에 있던 많은 군사책을 가져와 신흥무관학교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여인을 파견하였는데, 그 여인은 김경천의 집을 감시하던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⁸¹⁾ 그런데 학교는 일제의 박해와 중국 지방 당국의 압력으로 1919년 11월 폐교하였다.⁸²⁾ 그러므로 김경천이 신흥무관학교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던 시간은 길어도 4개월여에 지나지 않았다.

김경천은 安東縣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大韓獨立青年團⁸³⁾에 참여

77) 현 주소는 吉林省 柳河县 孤山子鎮 大柱子 舍勝鄉 勝熙村(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해외사적지참조)

78) 김병학 정리, 『경천아일록』, 70쪽의 각주 7.

79) 원병사,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27쪽.

80) 『경천아일록』, 7. 남만주에 出奔 : 4252년[1919년] 6월 9일 이래.

81)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353~354쪽.

82) 원병사, 「신흥무관학교」, 32쪽.

83) 1919년 4월 안동현 구시가 豐順錢에서 趙在健, 咸錫殷 등이 조직한 항일무장단체. (박환, 「만주지역 대한청년독립단연합회의 성립과 활동」, 『하석 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358~363쪽). 현 주소는 辽宁省 丹东市 元宝山 底이다.(국가보훈

하였다. 1919년 8월 대한독립청년단은 安秉瓚 외 28명의 연서로 「중화민국 官商報 學界 諸君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명단에서 김경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⁸⁴⁾ 성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이 침략할 것임을 강조하고 만일 국제연맹에서 한국문제에 만족할만한 해결을 얻지 못하면 독립전쟁을 선포하여 최후의 1인까지 혈전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대한독립청년단은 일본경찰에 조직과 활동상황이 탐지되어 그해 8월 30일 안병찬·趙在健 등이 체포되어⁸⁵⁾ 크게 위축되었다.⁸⁶⁾ 김경천의 대한독립청년단 참여 활동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한편 김경천은 만주 망명 이후 號였던 擎天兒에서 ‘경천’을 취하여 이름으로 사용하였다.⁸⁷⁾ 1920년 1월 14일자로 菊池義郎(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內田康哉(외무대신)에게 보낸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기밀 제4호,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 9)에 ‘김경천’이라 언급되었고, 한자에 誤記가 있기는 하지만 『독립신문』 1922년 7월 1일자에도 ‘金敬天’이 언급되었는데⁸⁸⁾ 같은 인물일 것이다.

金應天이라는 이름도 사용되었다. 일제첩보문서에 1921년 7월 28일자로 渡邊里惠(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 대리영사)가 內田康(외무대신)에게 보낸 “선인의 행동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기밀제50호,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 12)에 김응천이 언급되었는데 ‘鮮人社會黨 군대 사령관’으로 되어 있다. 언론에는 김경천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언급되었는데 『동아일보』 1921년 8월 18일자에 처음 등장한다.⁸⁹⁾

처 홈페이지(해외사적지)참조.

84)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2)』, 1978, 308-309쪽.

85) 『독립신문』 1919년 9월 4일 「安秉瓚 趙在健 兩氏 被逮」.

86)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2)』, 306쪽.

87) 「오가세기 김해김씨」; 공민, 「노령견문기(5). 8. 경천 김장군」,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

88) 『독립신문』 1922년 7월 1일 「金敬天氏의 소식」.

89) 『동아일보』 1921년 8월 18일 「기세가 熾盛한 마적, 간도부근 지방이 가장 위험, 金應天이 이끄는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馬賊團」.

만주 망명 후에는 김경천, 김응천과 함께 金光瑞라는 이름도 사용되었다. 1920년 3월 29일자로 川南省一(局子街 분관주임 외무서기)이 內田康哉(외무대신), 조선총독 등에게 보낸 「間島 不逞鮮人 단체와 그 동정에 관한 調査書의 건」(기밀 제14호, 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의 部在滿洲의 部 16)에 김광서로 언급되었다. 언론에는 1921년 11월 27일자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 거론되었다.⁹⁰⁾ 즉 만주 망명 이후 그는 김광서, 김경천 그리고 김응천이라는 세 이름으로 일제의 첩보자료와 신문들에 언급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19년 9월 중순 김경천은 신영균과 같이 무기구입위원으로 선정되어 니콜스크(蘇王營)를 향해 서간도를 출발하였다. 張吉相이 裴天擇 편에 군자금으로 5만원을 보내왔었기 때문이다.⁹¹⁾ 김경천·지대형·신영균 등은 1920년 3월 1일 국경지대 중 한 곳을 점령하여 국내에 3·1운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자극을 주고자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지대형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으로 약칭)와의 연락, 신영균은 남만주 한인사회의 지원, 김경천은 노령으로 무기구입 루트 개척을 책임 맡아 각각 이동하였다.⁹²⁾

김경천은 노령으로 가는 도중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북간도를 선택하였다. 10여 일만에 吉林에 도착하여 여러 날 머무르며 미국에서 온 朴容萬 등을 만났다. 그러나 그곳 지방 파벌간의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⁹³⁾ 9월 말 길림을 출발하여 장춘, 하얼빈을 거쳐 니콜스크에 도착하여 수십일 동안 머무르며 각 방면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에도 지방색이 있다고 안타까워 하며 자신은 중립이라고 하였다. 그리

90) 『매일신보』 1921년 11월 27일 「칠십 명과 공히 전사, 過派軍을 원조하던 金光瑞, 기병 중위로 음모 조선인과 결합하여 무력침입을 계획」; 『동아일보』 1921년 11월 27일 「독립운동자 金光瑞 戰死說, 과격파군대에 참가하여 전쟁중 부하 칠십 삼명과 가치」.

91) 『경천아일록』, 7. 남만주에 출분(出奔) : 4252년[1919년] 6월 9일 이래; 이영명, 『김일성열전』, 60-61쪽;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354쪽.

92) 이영명, 『김일성 열전』, 60-61쪽.

93)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 「노령견문기(5) : 경천 김장군」.

고 “군인은 군사행동의 실전지로 비바람을 무릅쓰고 가고 삶과 죽음의 굴을 넘나들어도 좋으리라”⁹⁴⁾ 자신을 정리하였다.

4. 연해주에서의 마적 토벌

1920년 3월 12일 소비에트 적군(혁명부대)과 한인빨치산⁹⁵⁾부대가 아무르강 하구 북쪽에 위치한 니콜라예프스크(尼港)의 일본군과 민간인을 전멸시킨 사태(니항사건)가 발생하였다. 일본군은 이를 명분으로 1920년 4월 4일 연해주 전역에서 소비에트 적군과 한인들의 중심지 신한촌을 공격하였다. 이튿날 새벽까지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 니콜라예프스크-우수리스크, 스파스크, 하바로프스크, 쉬꼬또보, 뽀세트 등을 총공격하였다.⁹⁶⁾ 김경천은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이유는 소비에트 공산당을 쫓는 것보다 대한의 독립운동 방해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⁹⁷⁾

김경천은 4월 4일 밤 자고 있던 집에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 張基永·鄭在寬⁹⁸⁾·朴君化 등과 함께 산으로 피신하였다가 內水淸⁹⁹⁾ 다우지미[大宇地味] 抱水洞으로 이동하였다.¹⁰⁰⁾ 수청 지역이 산악지대로 유격전을 하기

94)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a.4252년[1919년]; 공민, 「노령견문기(5). 8. 경천 김장군」,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

95) 러시아지역 한인들은 한인 무장부대들을 주로 ‘의병’ 또는 빨치산이라 불렀다.(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14쪽)

96)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90쪽.

97)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b.4253년[1920년] 3월 21일'.

98) 미국에서 활동하다 러시아로 이동하여 대동공보사, 권업회,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 등에서 활동하였다.(박환, 「시베리아 항일운동사 김경천」, 360쪽)

99) 수청은 연해주의 동북 해안일대를 지칭한다. 제정러시아 시기에 한인들은 수청 지역을 외수청, 내수청, 소자하(蘇子河, 또는 水州河, Sudzukhe), 도비허(都飛河, 都兵河, Anuchino)의 4구역으로 나누었다.(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28쪽의 각주 27)

100)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b.4253년[1920년] 4월 4일의 다한(多恨)'.

좋고, 연해주에서는 한인빨치산의 가장 중요한 활동 근거지였으며,¹⁰¹⁾ 과거 의병과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 鐵血團, 그리고 러시아혁명 이후에는 韓昌傑 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의 근거지로 항일의식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이다.¹⁰²⁾

4월 6일 수청 지역도 일본군과 백군의 지배하에 들어갔는데¹⁰³⁾ 일제의 조종을 받는 중국계 馬賊들도 수시로 출몰하여 한국인들을 괴롭혔다.¹⁰⁴⁾ 일제는 마적을 이용하여 한국인들을 괴롭힘으로써 한국인들이 한국독립군과 쏘비에트 적군에게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였다.¹⁰⁵⁾ 일제는 내수청에서 철수하고 외수청에만 주둔하고 있었는데 紅鬍賊(또는 紅依賊, 홍후즈 Hong-fuzi)을 선동하여 무기를 공급하고 한인촌을 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경천은 마을의 유력자들과 협의하여 격문을 보내 의용군을 모집하고 무기를 구입하였다.¹⁰⁶⁾ 그리고 주야로 연습한 후 마적 토벌을 시작하였다.¹⁰⁷⁾

5월 25일 忠祿山派(告山派) 홍호적 380여 명이 다우지미 마을로 침입해 들어오자 김경천 휘하의 내수청 지역의 45명, 도비혜 都兵洞로부터 온 100여 명, 니콜라예프까(新營洞, 신영거우)에서 한창걸이 이끌고 온 40명 등으로 구성된 한인빨치산부대가 쏘비에트 적군 60명과 연합하여 마적 360여 명을 몰살시켰다.¹⁰⁸⁾ 그리고 이후의 마적 침입에 대비하여 상비조직으로 滄海少年團(또는 창해청년단)을 조직하였다. 김경천이 총지휘관,

101) 하라 데루유키,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항일운동(1905-1922)」, 『소비에트 한인백년사』, 서대숙 역음, 이서구 옮김, 태암, 1989, 27쪽.

102)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39쪽.

103) 강호여, 「수청의병대의 연혁」,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정신문화연구원, 1995, 386쪽.

104) 공민, 「노령견문기(5). 8. 경천 김장군」,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

105) 김승화 저, 정태수 역,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4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0쪽.

106)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0쪽.

107) 공민, 「노령견문기(5). 8. 경천 김장군」,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

108) 『독립신문』 1923년 1월 17일 「수청홍의적난실기(1)」.

정재관이 참모장을 맡은 창해소년단은 다우지미에 본부를 두고, 수청을 우지미·찻쿤(赤楊村)·니콜라예프가의 3개 구로 나누고, 구마다 상비경비대와 예비대를 두었다. 총지휘관 김경천은 우지미 지역의 지휘관을 겸하였는데 상비경비대 30명, 예비대 278명이었다. 찻쿤 지역은 지휘관 鄭舜哲, 참모 金圭冕, 상비경비대 22명, 예비대 191명이었고, 니콜라예프카 지역은 지휘관 한창걸, 참모 鮮于政, 상비대 50명, 예비대 476명이었다. 그러므로 창해소년단은 상비대 102명, 예비대 945명 규모였다.¹⁰⁹⁾

김경천은 창해소년단의 총지휘관으로 1920년 5월 소비에트 적군과 연합하여 홍호적들과 전투를 시작하였다. 다우지미 전투에서 300여 명의 마적 중 약 60명만이 목숨을 건졌다.¹¹⁰⁾ 1920년 6월 초에는 외수청 따인 채골 주민의 재산을 강탈한 마적 5-6명을 패퇴시켰다. 약 4개월 동안 김경천은 마적 토벌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1920년 가을에는 마적이라는 단어도 사라졌다.¹¹¹⁾ 창해소년단의 명예단장 김규면도 수청 지역에 출몰하던 마적들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하였다.¹¹²⁾

마적을 소탕하는 김경천에게 마적을 잡으러 고국을 떠나 러시아 땅에 왔느냐고 책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경천은 큰 일을 못하면 작은 일도 못한다고 주장하였다.¹¹³⁾ 마적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한인촌을 습격함으로써 한국독립군이 인적·물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토대를 분쇄시킴으로써 한국독립운동에 큰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마적 토벌은 한인촌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를 토대로 독립운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일이었고 독립운동이었다.

109) 「蘇城方面不逞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 1920년 10월 14일자, 『不逞團體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 10; 반병률,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1쪽.

110) 김경천, 「米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 경험담」,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111)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b.4253년[1920년] 6월 5일'.

112) 「老兵 김규면 備忘錄」, 『성재 이동휘 전서』하권, 윤병석 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148쪽.

113)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b.4253년[1920년] 6월 5일'.

김경천은 수청 지역에서의 마적 토벌로 명성을 얻었고, 마적 토벌에 성공한 후 수청 지역을 중심으로 軍政을 단행하였다. 그는 수청 지역의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러시아인도 통치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民政도 단행하였는데 민정책임자 정재관은 김경천을 도와 매년 매호 10월씩 걷어 군자금으로 활용하였다.¹¹⁴⁾

마적 토벌 후 김경천은 무관학교의 교육,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단체 방문, 그리고 군사사적 열람에 관심을 쏟았다. 1920년 9월 북간도 무관학교의 요청으로 북간도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수청으로 돌아왔다. 그해 10월 25일에는 추풍(秋豊, 수이푼) 솔밭관(松田關) 사회혁명군(솔밭관 고려혁명군) 본부에서 머물다가 血誠團에 가서 金清嵐과 蔡英¹¹⁵⁾을 만났으며, 김규면과 그 團隊도 만났다. 11월 1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숙모를 서울 사직동 집으로 보내 군사서적을 가져오게 하였다.¹¹⁶⁾

1921년 1월 25일 김경천은 대한국민의회¹¹⁷⁾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한국민의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한국민의회뿐 아니라 임정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상해 임정에 참여하는 것을 “벼슬을 구하러 간다”고 하였으며, 虛名에 취한 이들이 많다고 하였다. 정치에만 관심 두는 자칭 영웅이 많고 당파도 많다고 하였다. 임정의 군사가 매우 적다고 비판하였다.¹¹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에게 임정의 외교활동노선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임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

114) 공민, 「노령견문기(6). 8. 경천 김장군(숙)」, 『동아일보』 1922년 1월 24일.

115) 중국 浙江省 杭州군관학교 출신. 1920년 여름 임정에서 북로사령관으로 임명된 바 있는 채영 일행 15명이 추풍 자피거우에서 강국모와 만나 혈성단에 가담하였다. (『鮮人武裝團體와 馬賊의 衝突에 關한 報告書 送付件』, 1921년 3월 15일자, 『不逞鮮人關係雜件 朝鮮人の 部 在西比利亞』 11;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 지역 항일무장투쟁』, 53쪽.

116)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b.4253년[1920년] 11월 15일'.

117) 상해 임정과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대한국민의회는 1920년 2월 15일 정식으로 복설(復設)을 선언하였다.

118)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1월 25일'.

다. 육군유년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그는 대한제국 멸망의 원인은 약한 국력 때문이었고, 군사력은 국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5. 통합부대 ‘수청의병대’ 지휘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에도 상해 임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경천은 연해주한인빨치산부대들의 통합부대를 책임 맡았다. 1921년 4월 19일 트레치푸진(Trechifuzin)에서 혈성단의 姜國模와 韓一濟(함흥 출신의 사회운동가)¹¹⁹⁾가 김경천을 찾아왔다.¹²⁰⁾ 혈성단과 고려노농군회를 통합한 통합부대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혈성단은 1920년 1월(음) 오오츠크로부터 동행한 강국모와 14명, 남만주 서간도로부터 그로테고보에 와 있던 독립단원 80명을 기본으로 추풍지역 한인촌락 재피거우에서 조직되었다. 단장은 강국모, 단원은 약 100명이었다.¹²¹⁾ 강국모는 대한제국 장교 출신으로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로 망명하여 오오츠크 연안 금광에서 일하였는데 많은 사금으로 무기를 매입하여 혈성단에 기부함으로써 단장이 되었다.¹²²⁾ 그해 가을 일본군의 공격이 예상되자 수청 지역으로 이동하였다.¹²³⁾ 한편 고려노농군회는 1920년 10월 간도참변을 피해온 박경철(朴景喆)·이승조 등 신민단 군인 5명, 도비허에서 온 한창걸·이병수 등 8명, 수청 지방대 위원 강백우 등

119)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56쪽.

120)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4월 20일'.

121) 박환, 361 ; 「백절불굴하던 전우 리홍파에 회상기」, 『이인섭 친필노트』 6권, 59-61쪽;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104쪽.

122)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103-104쪽.

123) 박청림, 「혈성단에 대한 참고」, 383-384; 박환, 「시베리아 항일운동가 김경천」, 360~361쪽.

몇이 수주허 혼두거우(蘇子河 興頭洞)에서 한인의 자치 및 군사단체로 조직하였다.¹²⁴⁾

혈성단은 중심인물인 채영이 趙孟善부대와 함께 이르크츠크로 이동하자 군대를 지도할 총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자¹²⁵⁾ 고려노농군회와 연합을 시도하였다. 1921년 4월경 수주허 혼두거우에 본부를 두었던 고려노농군회 대표들과 추구예바 구역의 트레이푸진에 주둔하고 있던 혈성단 대표 강국모 등이 두 단체의 통합과 사관양성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들은 연해주지역의 ‘고려인을 통어하는 혁명단체를 조직하려는’ 목적에서 군대 대표와 지방대표들에 의한 단체 창설을 목표로 하였다.¹²⁶⁾ 통합된 민간 자치단체는 ‘한인사회당 연해주총회’(연해주한인총회)라 명명하였다.¹²⁷⁾ 1921년 4월 27일이었다. 창립 직후 연해주한인총회는 총회장 강국모, 부회장 金鍾和, 군무부장 겸 사령관 김경천, 고문 정재관, 재무부장 한일제, 민사부장 姜石鳳(강백우), 외교부장 韓昌傑, 교육부장 박경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군무부 안에는 군대를 편성하여 3개 중대(각 3소대)·기병소대·학도대·적십자대를 두었는데, 총사령관 김경천, 사령부관 김용준, 중대장 신용걸·이학운·허용하 등이 선임되었다.¹²⁸⁾

한편 고려노농군회 군대와 혈성단을 통합하여 수청의병대를 조직하였는데 병력은 약 300명이었다.¹²⁹⁾ 수청 지역에서 창립된 한창걸 군대, 훈춘에서 이동해온 신민단 군대, 추풍에서 옮겨온 혈성단 군대가 통합된 것이었다. 수청의병대의 책임자로 김경천이 초빙되었다. 그래서 김경천은 자신을 ‘수청 지역 한인빨치산 총사령관’이라고 그의 일기에 썼다.¹³⁰⁾

124)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3쪽.

125) 박청림, 「혈성단에 대한 참고」, 384 : 박환, 「시베리아 항일운동가 김경천」, 361쪽.

126) 최호림, 「원동변강고려인생활 역사초록」, 120~121쪽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4쪽.

127)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3쪽.

128) 최호림, 『원동변강고려인생활 역사초록』, 121쪽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4~65쪽.

129) 한창걸, 「한창걸 동지의 회상」: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3~64쪽.

수청의병대는 보병과 기병의 두 대를 조직하여 보병대장 李學雲은 1개 소대 135명씩 3개 소대, 기병대장 申泰龍은 80기를 지휘하였다. 모두가 소총을 가지고 탄환도 100발 이상 300발씩 준비하였으며 군마 80두, 기관총 4채, 육혈포도 가지고 있었다. 수청의병대는 항상 민가에 나누어 자며 일상에 체조·교련·보초·척후 등의 연습을 하고 여가에는 도로 교량의 수부에 종사하고 부서를 정하여 병기와 전곡을 징발하러 나갔다. 당시 신문에서는 김경천이 부하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며 재질이 영민하고 말을 잘 타는데 스스로 연해주 총사령관이라 한다고 하였다.¹³¹⁾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기에 김경천과 강국모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였다. 김경천은 강국모와 한창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강국모는 김경천에게 군무부를 맡겼을 뿐 연해주한인총회의 총회장은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수청의병대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문제로 개최된 ‘울진군 한인 노동자대회’에서 지도권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다. 즉 김경천은 대회에서 선출될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그 자신이 부대는 물론 모든 주민에 대해서도 지도권을 갖고자 하였다. 김경천을 지지하는 병사들이 대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무장해제시키는데 동원되었다. 그런 중에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부로 한인부에서 파견된 손풍익이 강국모가 쥐고 있던 권총에 잘못 맞아 살해되었다. 이후 김경천은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백했다고 한다.¹³²⁾

이 사건은 빨치산부대 지도부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단지 주도권 장악 때문이었다고 보는 해석은 재고가 요구된다. 각자의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활동 경험 등이 그들의 독립운동 전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천은 일본인이 설립한

130) 『경천이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4월 24일'

131) 『동아일보』 1921년 8월 18일 「기세가熾盛한 마적, 간도 부근 지방이 가장 위험, 金應天이 이끄는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馬賊團 등 그중에 단단한 단체가 많아」.

132)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289~290쪽.

경성학당에서 수학하였고 일본 육군유년학교와 일본육사 그리고 일본군 장교로 근무하였기에 군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김경천에게는 한인 빨치산부대들이 통합한 통합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무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군무를 책임 맡고 있는 자신이었다.

강호여의 회고에 의하면, 김경천이 부대 명칭을 임의로 ‘고려혁명군’이라고 고치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전 혈성단 소대장 4명과 올긴부대 소대장 2명을 참모부의 승낙 없이 해임시키고 자신의 부하들을 대신 임명시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총회 개최를 위한 예비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의제는 단체 명칭과 간부임원 후보선정 두 가지였다. 김경천은 단체 명칭을 자신이 이미 선포한 고려혁명군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손풍익은 그것이 간부임원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혁명사업에서 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인사회당군대’라고 할 것을 제의했다. 한창걸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손풍익의 제의에 찬성했으며, 강백우의 제의에 따라 한인총회의 명칭도 ‘연해주한인사회당총회’로 개칭이 결정되었다.¹³³⁾ 그런데 김경천의 일기에서는 ‘고려혁명군’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분란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조직되었고, 주민들의 최고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김경천은 위원회의 군사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사령부로부터 한인빨치산부대를 아누치노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다.¹³⁴⁾ 한편 김경천은 트레치푸진에 설립된¹³⁵⁾ 6개월 숙성의 사관학교 교장도 맡아 사관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교관은 박경철, 강백우 등이었으며 학생수는 42명이었다.¹³⁶⁾

133) 강호여, 「연괴우 의병대와 수청빨치산대에 참가한 강호여 동지 회상기」, 『이인섭 친필노트』 10권, 47~48쪽;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289쪽.

134)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5쪽.

135) 샬브시나, 「조선인 국제주의자들의 영웅적 과업」, 『일제하 극동시베리아 한인사회주의자들』, 77~78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2쪽; 김병학 정리, 『경천아일록』, 117쪽의 각주 30.

136)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4월 24일';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

1921년 5월 김경천은 도비허의 러시아 적군 사령관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러시아군의 군용품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추풍에서 일본군의 압박을 받고 1920년 가을 트레치푸진에 온 강국모 군대의 200명 군인이 40호에 불과한 한인으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더 불어 야꼬블레프까 지방에 마적(胡賊)이 많으므로 보병 한 소대를 수비대로 보내 한인들을 보호했다.¹³⁷⁾

1921년 5월 일본의 지원으로 백군이 연해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자¹³⁸⁾ 그해 8월 수청의병대는 연해주에 있는 적군과 무장연합을 추진하였다.¹³⁹⁾ 김경천은 러시아 적군과 연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을 점령한 것처럼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온 일본군을 격멸하고, 한국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부하들에게 설명하였다.¹⁴⁰⁾

1921년 8월 수청의병대는 러시아 참모부의 지령에 따라 모두 도비허로 이동하였다.¹⁴¹⁾ 그런데 창설 이후 김경천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혈성단의 강국모가 통합 결정사항에 불만을 품고 1921년 9월 추풍으로 이동해갔다. 그리고 김경천은 러시아 유격대에 제안에 따라 수청의병대 일부를 을가항의 러시아 나자렌코 빨치산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고, 나머지 대원들과 도비허 아누치노로 이동하였다.¹⁴²⁾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수청의병대가 러시아 영토에 있으므로 러시아군의 도움이 필요하고 따라서 러시아군의 지시에 응하여 행동한다고 하였다.¹⁴³⁾

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5쪽.

137)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9월';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3-64쪽.

138)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4쪽.

139) 박청림, 「혈성단에 대한 참고」, 385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4쪽.

140) 박청림, 「혈성단 부대의 전투행로」, 50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4쪽.

141) 강호여, 「수청의병대 연혁」,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흥범도편』, 387쪽.

142) 십월혁명십주년원동개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블라디보스톡, 1927, 52쪽 : 「박청림이 이인섭에게 보낸 편지-혈성단의 연혁」 1962년 3월 2일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6쪽.

1921년 10월 김경천이 이끄는 수청의병대는 러시아 적군과 연합하여 수청 니콜라예프카에 주둔한 백군을 공격하였는데 도리어 추격당하여 크게 패배하였다. 당시 5-600명에 달하던 빨치산부대들은 전사하고 흩어졌다. 김경천은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이만 지역으로 이동하였다.¹⁴⁴⁾ 그래서 신문에는 김경천의 사망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¹⁴⁵⁾

1921년 11월 퇴각당하던 김경천은 군대를 이끌고 연해주 빨치산사령부가 있는 깔리닌 구역 까르톤 마을에 도착했다. 30명의 김경천부대는 곧 부근 엘레-쓰스노프카 마을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¹⁴⁶⁾ 12월 15일 백군이 까르톤을 포위하였고, 적군 대대장은 백군에게 항복하였다.¹⁴⁷⁾ 4대의 기관총을 보유한 보병 60명과 기병 4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적군들이 김경천부대로 옮겨왔다. 김경천은 이들을 자신의 부대에 편입시켜 임시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¹⁴⁸⁾

1922년 1월 김경천이 이끄는 혼성빨치산부대(러시아 적군+한인독립군)는 이만을 향해 나아갔다. 김경천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하바로프스크에서 러시아의 적군과 백군이 전쟁하는 틈을 타 이만에 있는 백군을 공격하여 이만과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백군 간의 연락을 끊고자 하였다. 약 200명의 혼성빨치산부대로 700여명의 백군과 약 6시간에 걸친 전투로 이만을 정복하였다. 일제의 정보문서는 일본군과 격돌한 김경천 부대의 모

143)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9월'.

144) 김경천, 「氷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경험담」,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53~54쪽;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291쪽.

145) 『동아일보』 1921년 11월 27일 「독립운동자 김광서 전사설」; 『매일신보』 1921년 11월 27일 「70명과 공히 戰死, 過派軍을 원조하던 金光瑞, 기병 중위로 음모 조선인과 결합하여 무력침입을 계획」.

146) 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294쪽.

147)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11월 17일 이후 전쟁' ; 아령조선군인 김경천, 「氷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경험담」,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148) 김경천, 「氷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경험담」,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습을 무력이 부흥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¹⁴⁹⁾ 이 전투는 극동 내전의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구성한다고 극찬되었다.¹⁵⁰⁾ 그러나 김경천 부대는 백군이 증원 공격하자 숫적 열세와 배후에 일본군대가 있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이만에서 다시 퇴각하였다.¹⁵¹⁾

이만 전투 후 김경천은 아누치노로 돌아갔다. 겨울 동안 각지를 옮겨 다니며 전투를 하고 6~7개월 만에 빨치산의 중심지로 돌아간 것이었다.¹⁵²⁾ 이즈음 김경천이 한창걸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군사의 밀정이 되었던 자와 친일파들을 암살하고 廣東으로 가서 그곳 독립군과 협력하여 한국으로 잠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다.¹⁵³⁾ 또한 항일선전문을 배포하였는데 일본장교와 일본인을 암살하면 상금을 주겠다는 항일선전문을 배포하고 있다는 내용도 수록되었다.¹⁵⁴⁾ 이만 전투에서 보여준 김경천 부대의 강력한 지도력과 전투력이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신계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1922년 6월 5일 김경천은 연해주혁명군사회로부터 훈춘군사구역 고려인의병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¹⁵⁵⁾ 이틀 후인 6월 7일 도비허를 떠나 추풍, 연추 지대로 군대를 인솔 출발하였다. 그리고 車巨于 서남철도를 횡단하여 일본군과 백군 사이를 단절시켰는데, 추풍에서 강국모의 군대와 공산군대의 충돌이 일어나¹⁵⁶⁾ 한 달만에 해직되어 수청 다우지미로 귀환하였다.¹⁵⁷⁾

149) 「조선군참모부 연해주방면 정세보고문서」(조특보 제17호), 1922년 5월 3일, 김정명, 『조선독립운동』Ⅴ(공산주의운동 편), 東京:原書房, 1967, 226쪽.

150)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295~296쪽.

151) 김경천, 「氷雪 쌓인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경험담」,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152)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c.4254년[1921년] 11월 17일 이후 전쟁'.

153) 『동아일보』 1922년 4월 28일 「獨立團의 揚言, 간도를 침입한다고」.

154) 『동아일보』 1922년 6월 2일 「일본인 현상암살, 독립군사령관 김경천의 선전」.

155) 최호림, 「원동변강고려인생활 역사초록」130~131쪽;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6쪽.

156)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d.4255년[1922년] 6월 7일'.

157) 최호림, 「원동변강고려인생활 역사초록」130~131쪽;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

1922년 여름 이후 일본군의 철병이 임박해지자 러시아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단체들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¹⁵⁸⁾ 김경천의 수청의병대도 1922년 8월 한족공산당과 합하여 대한혁명단이라고 개칭하고 니콜스크 서쪽 7리에 본부를 두었다. 단원은 약 500명이었는데 모두 무장을 하였고 마필은 80두, 김경천이 사령관이었다. 김경천은 아편 추출을 통하여 대한혁명단의 경비를 마련하였으며, 군인교육을 위하여 러시아육군사관 5명을 고빙하여 월 50원씩 급여를 주며 교육을 시켰다. 또한 교육연한 2년의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300명 생도 수용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14-18세의 청년으로 대한혁명단의 자제로부터 선발하였다.¹⁵⁹⁾ 한편 그는 가난한 한인동포들에게 군자금을 징수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러시아 국경에 비옥한 평야가 많으니 청년들을 모집하여 농업을 하면서 실력을 쌓고 시기를 기다리면 군자금 모집에 급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⁰⁾

1922년 9월경 김경천은 러시아 적군들과 함께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뽀시에트를 거쳐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전투원정에 참가하였다.¹⁶¹⁾ 승리하였으나 왼쪽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¹⁶²⁾ 1922년 10월 일본군의 철퇴가 완료되기 직전 고려혁명군이 조직되었는데 추풍에 본부를 두었고 김규식이 총사령관이었다. 김경천은 동부사령관을 맡았는데 본부는 그의 근거지 수청이었다. 그는 수청 토비호에 사관하사 양성소를 설

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66쪽. 마트베이 김의 자료를 토대로 한 박환과 윤상원은 김경천이 임명된 것이 7월이라 하였다.(마트베이 김 저, 이준형 옮김,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160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7쪽;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296쪽) 『경천아일록』을 보면 6월이다.

158) 반병울,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46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7쪽.

159)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7쪽.

160) 『동아일보』 1922년 9월 26일 「緩化한 金應天」; 『신한민보』 1922년 11월 2일 「완화한 김응천」.

161) 샤브시나, 「조선인 국제주의자들의 영웅적 과업」,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77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7쪽.

162) 박청림,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 58-59쪽;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248쪽.

치하여 20-33세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6개월 동안 700명씩 양성할 계획도 수립하였다.¹⁶³⁾

이처럼 러시아 적군과 힘을 합하여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김경천의 목표는 한국의 독립이었다.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므로 러시아인들과 협력하였고, 러시아 땅에서 백군이 패퇴하고 일본군이 물러가면 러시아 적군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하자 1922년 11월 <연해주 고려혁명군과 한인빨치산부대 군사혁명소비에트의 해산과 국민전쟁 참가자 귀가에 대한 인민혁명군 총사령관의 명령 799호>가 내려졌다.¹⁶⁴⁾ 러시아내전 이후 러시아 적군의 후원을 얻어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려 했던 김경천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연해주의 모든 한인 의병대들이 해산되면서 수청의병대도 해산되었다.¹⁶⁵⁾

이후에도 김경천의 독립운동은 계속 되었다. 김좌진의 대한독립단에 참여하여 활동 중,¹⁶⁶⁾ 독립단 단원을 모집하여 이만 지방으로 보내는 중,¹⁶⁷⁾ 국내의 관공서 폭파를 목적으로 국경 방면으로 향하는 중,¹⁶⁸⁾ 무관학교 설립 계획 중¹⁶⁹⁾ 이라는 신문기사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일제침보자료도 김경천이 이만 부근에 1,000여 명의 부대를 편성하여 屯田 조직에 의한 군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창범이나 이동휘를 능가하는 세력을 갖추었다고 하였다.¹⁷⁰⁾

수청의병대 해산 이후 김경천은 1923년 2월 11일 니시를 출발하여 2월

16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9, 1984, 826-827쪽.

164)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314쪽.

165) 반병률, “노령노농군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운동·단체편), 독립기념관, 1996, 241쪽.

166) 『동아일보』 1923년 3월 6일 「獨立團大會說」.

167) 『동아일보』 1923년 1월 27일 「이만에 병력집중, 김광서 문창범 등의 근일 활동」.

168) 『동아일보』 1923년 5월 10일 「金應天 國境方面에 폭발탄과 권총을 가지고」

169) 『동아일보』 1923년 4월 26일 「海蔘威에 武官學校」.

170) 1923년 7월 5일자 조선군참모부의 「조선내의 일반정황」(조특보 제34호),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5(共產主義運動 篇), 東京:原書房, 1967, 60쪽.

19일 상해에 도착하였고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민대표회의에 가는 목적이 단지 내외지의 활동가들을 만나보자 함에 있을 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다.¹⁷¹⁾ 1924년 1월 1일자 일기에 수록된 ‘불쌍한 독립군’이라는 제목의 시는 러시아에 의해 무장해제 당한 후 절망한 그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1924년 3월 한족군인구락부를 조직하여 본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지부를 니콜스크에 두는 등 활동을 펼쳤으나¹⁷²⁾ 러시아당국의 대한인정책과 노령출신 2세들과의 갈등으로 그의 활동은 점점 쇠퇴하였다.¹⁷³⁾ 1926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尹海·김구식 등과 민족당주비회를 조직하였으나¹⁷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가 소망하였던 무장독립운동선상에서 멀어져갔다.

6. 맺음말

일본 육군유년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대에서 현역 장교로 상당 기간 복무하였던 김경천은 1916년 일본육사 후배들과 만든 친목 모임 전의회에서 그의 장래 그리고 국망된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였다. 독립운동을 위한 그의 만주 망명 계획은 늦어도 이때부터 싹을 틔웠다. 1918년 일본에 거주하였던 가족들을 서울로 옮기고 1919년 초에는 칭병하고 휴가를 얻어 서울로 온 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가 망명에 나선 날은 셋째 딸이 태어난 지 채 두 달도 안 된 때였다.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위치를 외면하였다. 그리고 조국을 택하였다. 조국과 가족을 병행하여 위할 수 없다는

171) 『경천아일록』, '8. 시베리아. d.4255년[1923년] 1월'.

172) 『동아일보』 1925년 6월 21일, 「更始一新의 활동」.

173) 『매일신보』 1925년 4월 28일, 「조선출신자 탈당 노골화한 高麗共産內訌」.

174)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9(朝鮮 5 : 共産主義運動), 東京:みすず書房, 1972, 48쪽.

그의 일기 기록은 안타까운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다.

가족을 뒤로 하고, 식민통치에 협력하면 일신의 안달은 가능하였던 현실을 거부하고 가시밭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그의 결심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에 잠깐 참여하였던 그는 무기 구입 문제로 러시아로 이동하였다. 이후 러시아 적군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4년여를 무장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일관하였다. 일본육사 출신이기에 그에게는 많은 지역과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다. 그는 그러한 제안들에 응하였는데, 군인이었던 그에게 한국의 국망은 무엇보다도 무력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무장 독립운동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고, 독립운동단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은 그들의 출신과 교육, 그리고 지역을 근거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전개하였으므로 그러한 여건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릴 때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에서 복무한 그에게는 학맥도, 연고 인맥도 없었으므로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의 지역성, 학맥성, 종교성 등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독립운동단체의 군사 분야에 주력하여 독립운동가들을 훈련시키고,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강한 독립운동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의 독립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독립운동을 펼쳤던 지역이 러시아 땅이었기에 러시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하였던 러시아 적군의 한국 독립군 해산 명령은 그에게 절망이었다. 그것은 망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었다. 그는 그렇지만 계속하여 독립운동의 길과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러한 그의 행동은 소련당국에 간첩 혐의를 갖게 하여 결국은 수감되고 감옥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가족과 출세를 뒤로하고 조국 독립의 험난한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하였고, 망국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한 그의 선택

과 발걸음은 가치 있고 숭고하다.

- 투고일 : 2015. 10. 30 / 심사완료일 : 2015. 11. 13 / 게재확정일 : 2015. 12. 9
- 주제어 : 수청의병대, 일본육군사관학교, 김응천, 김광서, 김현충, 경천아일
록, 창해소년단, 혈성단, 고려노농군회

❖ 참고문헌

- 『고종실록』,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신한민보』, 『황성신문』
-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9(朝鮮 5 : 共產主義運動), 東京:みすず書房, 1972.
- 강호여, 「수청의병대의 연혁」,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정신문화연구원, 1995.
-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우」, 『대한제국관원 이력서』, 1972.
-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2)』, 1978.
- 김경천 지음, 김병학 정리 및 현대어역, 『경천아일록』, 학교방, 2012.
- 김병학, 「경천아일록(擎天兒日錄)과 연해주 항일독립운동가 김경천의 생애」, 『인문사회과학연구』 1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5(共產主義運動 篇), 東京:原書房, 196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9, 1984.
- 마뜨베이 김, 『극동의 소비에트권력을 위한 투쟁에서 한민국제주의자들(1918-1922)』, 1979
- _____,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이준형 옮김, 역사비평사, 1990.
- 박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사학지』 50, 단국사학회, 2015.
- 박찬승, 「104년 황실 파견 독일유학생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 박 환, 「만주지역 대한청년독립단연합회의 성립과 활동」, 『하석 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 _____,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 _____,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 _____,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 일본육사 출신의 역사』, 일조각, 1982.
- 이영명, 『김일성 열전』, 신문화사, 1974.
- 이형석, 「지청천」, 『한국근대인물백인선』, 신동아, 1970년 1월호 부록.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문학과 지성사, 1995.
- 하라 데루유키,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항일운동(1905-1922)」, 『소비에트 한인백년사』, 서대숙 엮음, 이서구 옮김, 태암, 1989.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운동·단체편), 독립기념관, 1996.
- 한시준, 「한말 일본유학생에 관한 일고찰」, 『천관우선생활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 한용진, 「개화기 일본 민간단체 설립 학교 고찰 - 경성학당을 중심으로 -」, 『동양학』 3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 한철호, 「대한제국기 주일 한국공사의 입면 배경과 경위(1900-1905)」, 『한국근현대사연구』 44, 2008.

❁ 국문요약

1920년대 초반 김경천의 항일무장투쟁

윤 선 자

김경천은 1920년대 전반기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다. 일본 육군유년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대에서 현역장교로 상당 기간 복무하였던 그는 1916년 일본육사 후배들과 만든 친목모임 전의회에서 그의 장래 그리고 국망된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였다. 1918년 일본에 거주하였던 가족들을 서울로 옮기고 1919년 초에는 칭병하고 휴가를 얻어 서울로 온 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가 망명에 나선 날은 셋째 딸이 태어난 지 채 두 달도 안 된 때였다.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위치 대신 조국을 선택하였다. 가족을 뒤로 하고, 식민통치에 협력하면 일신의 안달은 가능하였던 현실을 거부하고 가시밭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그의 결심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만주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에 잠깐 참여하였던 그는 무기 구입 문제로 러시아로 이동하였다. 이후 러시아 적군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4년여를 무장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일관하였다. 일본육사 출신이었던 그에게 많은 지역과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군인이었던 그는 한국의 국망 원인을 약한 무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무장독립운동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고, 독립운동단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은 그들의 출신과 교육, 그리고 지역을 근거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전개하였으므로 그러한 여건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릴 때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에서 복무한 그에게는 학맥도, 연고

연맥도 없었으므로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의 지역성, 학맥성, 종교성 등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독립운동단체의 군사 분야에 주력하여 독립운동가들을 훈련시키고,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강한 독립운동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의 독립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므로 러시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하였던 러시아 적군의 한국독립군 해산 명령은 그에게 절망이었다. 그것은 망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하여 독립운동의 길과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소련 당국은 그러한 그의 행동을 간첩혐의로 간주하여 수감하였고, 그는 감옥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가족과 출세를 뒤로 하고 조국 독립의 험난한 길은 선택하였다. 독립운동을 위한 그의 선택과 발걸음은 가치롭다.

❁ 영문요약

Armed Struggle Led by Kim, Kyung-chon
against Japan in the Early 1920s

Yoon, Seon-ja

Kim, Kyung-Chon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had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his country in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in the early 1920s. After graduating from Japanese Army Youth School and Japanese Military Academy, he served the Japanese military as an active officer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he shared his worries about the reality and future of his fallen country as well as his future with juniors of the Japanese Military Academy at their friendship gathering. In 1918, he moved his family to Seoul who at that time resided in Japan and in early 1919 he, too, took a vacation by being excused from his job for Seoul and then asked for asylum to Manju. The day he left the country for Manchuria on asylum was barely two months into birth of his third daughter. Hardly denying the reality of his country degenerating to a colony, he chose the country over his responsibility and position as breadwinner of his family. Because he left behind the family and his security that he would have achieved if he had cooperated with the colonialism, his decision to give up the possibly comfortable reality to the thorny road of independence was ever more valuable.

Following the asylum to Manchuria, Kim, Kyung-Chon temporally joined the New Military School before moving to Russia to buy weapons. Since then, he had carried out his armed independence movement for four years

until he received a dissolution command from the Russian Red Army. Because he was soldier and a graduate of Japanese Military Academy, numerous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spread in different areas proposed him to join their group. As a soldier, he blamed fall of his country on its weak force, and thus he paid most attention to armed independence movement and thought he needed to cooperate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The independence activists and groups, however, had started their movement based on backgrounds, education and regions from the country. This was unavoidable but unperceivable conditions for him who had studied in Japan from the childhood, graduated Japanese Military Academy and served the Japanese Army with little academic and personal connections since the other independence activists and groups were all connected by regions, schools and religions. Despite these, he was strongly determined to focus on military field by training other independence activists and cultivate soldiers at Army School her established. By doing so, he wanted to have a strong independence movement group,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independence itself.

Because dissolution command by the Russian Red Army just occurred in its response to developments in the country, this situation brought him nothing but a despair. To him as a national who lost his country, the reality was painful frustration. He continued to find out what he could do for independence movement and how it could be carried out before he was imprisoned by the Soviet authority with spy charge and died in the prison. He chose the bumpy road for independence of his country in sacrifice of his own family and success. His choice and footsteps for independence should be regarded as a value.

Key words: Su-Chung Army with Cause of Justice, Japanese Military Academy, Kim Eung-Cheon, Kim Kwang-Seo, Kim Hyun-Chung, Gyeong-cheon-a-il-rok, Chang-Hae Boy Delegation, Hyul-Sung-Dan, Goryeo and Russian Farmer Militants